

아젠다명 : 포스트 지역학 시대의 일본 생활세계 탐구 - 성숙과 변용, 위기와 연대 -

[연구아젠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HK+아젠다 수행을 위해 단계별 중주제, 즉 1단계 (2019.9~2022.8) <생활세계의 성숙과 위기>, 2단계 (2022.9~2026.8) <생활세계의 변용과 연대>를 설정하고, 각각 ‘성숙과 변용’, ‘위기와 연대’를 키워드로 삼는 2개의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주제별 연구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제 분야의 소통과 연동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실험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다.

○ 1단계의 중주제인 <생활세계의 성숙과 위기>는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일본형 민주주의’와 ‘일본형’ 자본주의라는 사상-체제가 근대 이후 일본에서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발전하고 성숙해온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등장하는 위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일본 생활세계에서 구조적 변동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조건 하에서 일어났는지, 그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관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학제적 접근을 통해 고찰,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2단계 <생활세계의 변용과 연대>에서는 1단계에서 수행한 연구성과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2020년대와 그 이후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이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HK사업 기간 동안 일본사회의 현재적 상황과 역사적 형성을 추적한 성과를 토대로 ‘일본형’ 민주주의와 ‘일본형’ 자본주의라는 사상-체제의 성숙과 위기에 대응하여 모색되고 있는 변용의 가능성과 연대의 방식, 그리고 그 대응과 전망이 도출되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탐구를 통해 생활세계 연구를 심화한다.

[지역인문학센터]

본 센터는 1) 일본 지역과 유기적 연계를 맺는 연구소의 특성을 살려서 일본 이해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2) 동시대 일본과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지역 시민과 더불어 모색한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 목적은 3) 위기의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상생 관계를 도모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활세계에 선순환의 가치와 질서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1) ‘포스트지역학 시대 일본생활세계 탐구’라는 본 연구소의 연구 아젠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 동시대 사회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는 인문학적 가치와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할 것이다.